

[제2016-32호]

 한국문화원 KOREAN CULTURAL CENTER LOS ANGELES		<h1>보도자료</h1>		LA한국문화원 www.kccla.org 550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el (323)936-7141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	
배포일시	2016.6.1.(수)	담당자	Tammy Chung 323-936-3015		

제목 : <천하무뽕> 공연

상상력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이야기 '천하무뽕'



- ▶ 공연명 :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천하무뽕> (The Amazing Fart) 공연
- ▶ 일시 : 2016년 6월 10일 금요일 오후 7시30분
- ▶ 공연 장소 : LA한국문화원 3층 아리홀
- ▶ 주최 : LA한국문화원, 극단마실(제작 이경수, 출연/작 손혜정)
- ▶ 온라인 예약 : www.kccla.org
- ▶ 첨부자료 : 공연 포스터 및 사진자료 등 각 1부
- ▶ 공연문의 : LA한국문화원 323-936-3015 공연담당 Tammy Chung

LA한국문화원(원장 김낙중)은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 그 네번째 무대로 극단마실(제작 이경수, 출연/작 손혜정)과 함께 <천하무쌍> (The Amazing Fart) 공연을 6월 10일(금) 오후 7시 30분 문화원 3층 아리홀에서 개최한다.

상상력을 키워주는 살아있는 이야기 ‘천하무쌍’ 공연은 적극적인 참여를 좋아하는 어린이 관객과 배우가 만나, 관객의 반응에 따라 새롭게 완성되는 참여극으로 1인 전통연희인 ‘이야기꾼의 연행(演行)’이라는 한국연극의 정서와 힘을 경험할 수 있다.

“옛날옛날 옛날에~”

사람과 사람이 만나 나누던 옛 이야기의 따스함과 정겨움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화려한 장난감과 볼거리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은 더욱 가난 해 질 수 밖에 없다. 간단한 소품과 움직임만 가지고도 다양한 인물로 변화되는 1인극의 연극적 상상력과, 눈과 눈을 마주치며 펼치는 살아 있는 소통 속에서 아이들은 자신 안에서 상상력이 무한히 뛰어 노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태고 이래 이런 소리는 없었다!

방구사건을 함께 해결하는 해결자가 되어 세상에 없었던 소리를 만드는 주체적인 창작자가 된다. 보기만 하는 관객은 가라! <천하무쌍> 관객이 모두 힘을 모아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 방구소리를 만들게 된다. 관객을 통해 태고 이래 최고의 소리가 공연마다 다르게 만들어지는 열린 형식의 공연이다. 따라서 공연자는 관객을 끝까지 믿고 관객을 통해 공연을 완성하게 되고 관객들은 공연을 보는 동안 공연 내용을 넘어서 서로의 힘을 믿고 격려하는 시간을 몸으로 체험하게 될 것이다.

재미나고 유쾌한 영혼의 밥상!

어린이극을 창작하고 어린이들과 작업해 온 어린이극 전문 창작 집단인 극단 마실. 소재의 선택에서부터 표현의 방법에 이르기까지 아이들의 영혼을 위해 밥상을 차리는 마음으로 만든 작품. 어린이뿐만 아니라 엄마 아빠에게도 재미난 가족극으로 온 가족이 두고두고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행복한 추억을 선물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한국의 재미난 민담 ‘방귀쟁이 며느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각색하였고 한국적인 음악에 기반한 작곡과 한국무용에서 출발한 인물별 움직임 등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한국문화의 해학과 맛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의 관람 및 참가는 무료이며, 사전에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을 해야 한다.

***2016년 공연작품 공모전 <2016 Ari Project>**는 공모를 통해 공연단이 LA현지 관객을 대상으로 우수한 공연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LA한국문화원 대표 공연프로그램입니다.

<천하무병> 공연

<줄거리>

방구를 쫓 수 없는 별이 있다면? 그 곳에 간다면? 사흘에 한 번씩 방구를 쫓아줘야하는 방구쟁이가 방구를 쫓 수 없는 사달수드별로 시집을 갔다. 다른 문화 속에서 적응하고 살기 위해 방구를 참지만 점점 더 불러오는 배와 고통스러움을 참을 수 없게 되어 몰래 방법을 찾아보게 되는데…….(민담 방구쟁이 며느리를 현대화 하여 각색한 작품)

<극단 소개>

극단 마실은 공연자 중심의 활동에서 벗어나 관객이 공연의 주체가 되는 경험을 갖도록 애씁니다. 어른과 아이들이 이웃집에 놀러 가듯 즉, 마실 나가는 마음으로 연극과 연극놀이를 만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 모두 이웃이 될 수 있기를 꿈꿉니다. 보다 많은 어린이 가족과 만나기 위해 2015년부터 미국 얼바인에 지부를 두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출연진 및 제작진>

출연/작 손혜정 | 연출 이윤희 | 작곡 함현상 | 마임 이두성 | 안무 정소연
드라마터그 경민선 | 영상 신재희 | 무대 김미경 | 의상 강정화 | 사진 원준혁 | 무대스텝 이해원
이조은 이가온 | 제작 이경수



손혜정

아동극 전문배우이자 연출가, 작가까지 ‘1인 3역’을 소화하는 손혜정씨는 늘 스스로를 ‘엄마배우’라고 소개한다. 손씨는 실제로 세 아이를 둔 엄마기도 하다. 초등학교 교사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손씨는 배우의 꿈을 버리지 못하고 뒤늦게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2005년 극단 ‘마실’을 창립하고, 청소년극과 다양한 예술교육프로그램을 만들며 활동해왔다.

/끝/